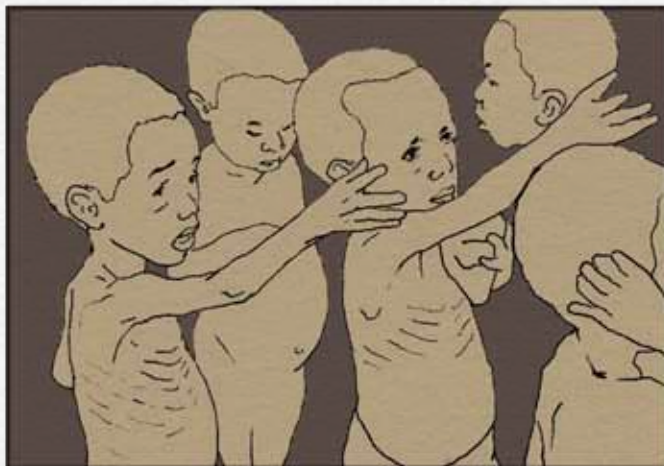




어느덧 삼십 여년이 훌쩍 넘어버진 지금
한달에 한번 고기반찬을 먹을까 말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끼 해결이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이 끼니를 못먹어 뼈적 마른 것을 보면
뭐라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어릴적 가난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다.
군것질 꺼리도 변변찮았던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부모님이 오시기전 토요일 늦은 오후
아우와 저는 밥 한공기와 간장 한종지를 두고 동생은 비벼주고
저는 물에 말아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없어서 못먹기 보다는
바빠서 못먹는 시대,
방송마다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요즘입니다.
남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잘 해 먹을까
혹은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를 어떻게 하면
잘 해 먹을까 하는 주제들입니다.
모두 풍요와 여유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아침 출근시간
 쏠살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
 숨가쁘게 도착한 일터에서 아침을 인스턴트로 때우는데
 문득 어머니의 아침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후 방금 만드신 밥과 따뜻한 국으로
 아침밥을 항상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정성을
 늘상 먹지않고 통명스레 뒤로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느덧 지천명을 몇 년 앞 두고
 몇차례 심하게 앓고 난 후에는 건강을 챙기느라
 뭇 아침을 거르지 않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또 바빠 돌아가는 세상살이로 인해서
 넘치는 먹거리와 개인주의가 발달한 도시속에서
 이제는 자식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일과가
 중요해진 부모가 되어보니,
 그때 그 따뜻한 어머니의 밥상이
 어려운 형편에 몸이 약했던 나에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었던 최상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아침밥상이 참 그리웁습니다.